

한의학의 근거중심의학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침구요법을 중심으로

백승민 · 이상훈 · 김정은 · 류 연 · 박효주 · 김보영 · 최선미

한국한의학연구원 침구경락연구센터

Traditional Korean Medicine Practitioners' Awareness and Attitudes toward Evidence Based Medicine

Seung-Min Baek, Sang-Hun Lee, Jung-Eun Kim, Yan Liu
Hyo-Ju Park, Bo-Young Kim, Sun-Mi Choi

Acupuncture, Moxibustion & Meridian Research Center,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Abstract

Objectives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KM) practitioners' awareness and attitudes about acupuncture clinical study toward evidence based medicine (EBM).

Methods : We conducted two surveys before and after the workshop. First survey, about the awareness and attitudes toward EBM was carried out with questionnaire. Second survey, about their changes in the attitudes toward EBM after the workshop was carried out with on-line questionnaire.

Results : 70.0 % of respondents shows interest in the trends of clinical research. In contrast, 26.0 % of respondents used to search papers by themselves. 30.3 % of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y apply the result of researches to their practice. 41.0 % of respondents thought that case study is needed for their practice, whereas 29.5 % responded that randomized controlled trial is most important.

In the second survey, the attitudes toward EBM were changes positive. fair number of respondents usually get information from data regardless of EBM for their practice, but 23.5 % of respondents refer to the journals.

Conclusions : The awareness and needs for education on the attendees toward EBM is quite high, and the effect of education is possibly influential. We expect the improvement on the refresher and the extension of education course for practitioners, and undergraduate curriculum.

Key words : Evidence based medicine (EBM), Survey, Traditional Korean medicine practitioners, EBM awareness, Clinical Research Workshop

1. 서 론

근거중심의학(Evidence Based Medicine-이하 EBM)

은 캐나다 McMaster 의과대학의 Guyatt에 의해 제창된 개념으로 최신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피시술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방법을 선택하여 시술하는 것¹⁾으로 1991년 처음 등장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EBM은 증례연구, 무작위 배정 임상연구 등으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를 모아 통합된 근거를

· 교신저자: 최선미,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한국한의학연구원 표준화연구본부 침구경락연구센터
Tel. 042-868-9485, Fax. 042-863-9464
E-mail: smchoi@kiom.re.kr
· 투고 : 2011/07/21 심사 : 2011/08/26 채택 : 2011/09/05

만드는 과정과 더불어, 통합된 근거를 다시 임상 의사가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여 임상 현장으로 전달하는 것 역시 중요한데 이는 임상 일선에 있는 의사들이 EBM을 수용하고 근거에 기반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EBM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의사들의 EBM에 대한 인식 조사²⁾와, 최신의 근거를 임상 의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³⁾ 및 임상 진료의 근거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⁴⁾에 대한 연구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한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근거중심 의료의 활성화를 위한 의학정보와 지침개발⁵⁾’과 같은 정부 주도 과제나 ‘임상진료지침 보급 및 정보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⁶⁾’ 등이 이루어진 바가 있다.

한의학의 침구치료 분야에서도 EBM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무작위배정 임상연구가 증가하고 있다.⁷⁾ 그러나 이등⁸⁾은 이에 대해 전반적인 RCT의 질이 낮으며 향후 다방면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2010년에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침구 임상연구의 표준 연구 방법이 업데이트 되어 국내에 소개되기도 하였다⁹⁾. 최근에는 병원 등에 근무하는 한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교육도 실시되고 있으며¹⁰⁾ 2011년부터는 한의사 보수교육 및 한국한의학연구원 워크샵과 정보 메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최신 침구 임상연구 결과 등이 보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임상연구 결과가 얼마나 임상 한의사에게 전달이 되며, 실제 진료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까지 연구된 바가 없으며 또한 EBM에 대한 한의사의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아니하였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안구 건조증에 대한 침구 임상연구¹¹⁾와 안면 홍조증에 대한 김 등의 침구 임상연구¹²⁾ 결과를 발표한 워크샵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한의사들의 EBM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설문 조사 방법

설문은 총 2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설문은 ‘한의 원단위 증례연구 활성화’를 위한 임상증례연구 워크샵 참가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1차설문은 워크샵 직후, 2차 설문은 워크샵 종료후 1개월 후에 실시되었다.

설문 방법은 1차는 설문지에 수기로 기록하게 하였으며 2차는 E-mail을 통해 실시되었다.

2. 설문 조사 항목의 구성

1차 설문은 총 13(2개 하위문항 포함)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2차 설문은 총 11(6개 하위문항 포함)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차 설문은 현재 임상에서의 EBM에 관한 인식도 및 태도에 대한 설문과 관련된 인구 사회학적 항목으로 구성 하였으며 2차 설문은 워크샵을 통해 습득된 지식이 EBM에 관련된 인식도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Hayward 등¹³⁾의 연구에 이용된 근거 중심 의학적 정보 출처 및 그 영향력에 대한 문항을 한의계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추가하였다. 또한 현재 EBM에 대한 인식 및 의견을 McColl 등¹³⁾의 연구에 이용된 질문을 이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3. 자료 입력 및 통계 처리

설문은 Double-entry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력하였으며 Microsoft Excel 2010(Microsoft, USA)과 SPSS 18.0(SPSS KOREA, 한국)을 이용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 과

1. 1차 설문조사

1차 설문조사는 ‘한의원단위 증례연구 활성화를 위한 임상증례연구 워크숍’ 직후 교육 참가자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43장으로 86%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획득하였다.

1) 응답자의 인구 사회학적 분석

응답자의 연령대는 30대가 17명(39.5%), 40대(30.2%), 20대(20.9%)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0대 이상은 3명에 불과하여 비교적 청장년층의 한의사에서 참여율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임상경력별 응답현황은 ‘10년 미만’이 30명(69.8%)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10년 이상 20년 미만’ 및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각각 5명(11.6%), ‘30년 이상’이 1명으로 나타났다.

참가자의 최종학력은 학사 18명(41.9%) 및 박사 17명(39.5%)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석사 3명(7%), 석사재학 3명(7%), 박사재학 1명(2.3%) 순이었다.

병원수련여부에 대한 응답현황은 ‘하지 않음’이 27명(62.8%)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의’가 8명(18.6%), 전문수련의 재직 중인 참가자가 3명(7.0%), 인턴만 수료한 참가자가 2명(4.7%)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구분	응답자 (명)	비율 (%)
성별	남자	31	72.1
	여자	10	23.3
	무응답	2	4.7
연령대	20대	9	20.9
	30대	17	39.5
	40대	13	30.2
	50대	3	7.0
	무응답	1	2.3
임상경력	10년 미만	30	69.8
	10년~ 20년	5	11.6
	20년 ~ 30년	5	11.6
	30년 이상	1	2.3
	무응답	2	4.7
최종학력	학사	18	41.9
	석사재학	3	7.0
	석사	3	7.0
	박사재학	1	2.3
	박사	17	39.5
병원수련여부	무응답	1	2.3
	하지 않음	27	62.8
	일반 수련의 수료	2	4.7
	전문 수련의 재직	3	7.0
	전문의	8	18.6
	무응답	3	7.0

2) 임상연구에 대한 관심도

현재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되는 임상연구 논문에 대한 관심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23.3%(10명)가 ‘매우 그렇다’, 46.5%(20명)가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20.9%(9명)가 ‘보통이다’, 7.0%(3명)가 ‘그렇지 않다’, 2.3%(1명)가 ‘매우 그렇지 않다’고 답하여 70%의 응답자가 최신 임상연구 동향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다(Fig. 1).



Fig. 1. The interest of respondents about the newest clinical research.

3) 임상연구 논문 검색

임상연구 논문을 직접 검색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가 34.9%(15명)로 가장 많았고 ‘그렇다’가 18.6%(8명), ‘보통이다’가 23.3%(10명), ‘매우 그렇지 않았다’가 16.3%(7명), ‘매우 그렇다’가 7.0%(3명) 순으로 나타나 26%의 응답자만이 임상연구 경향에 대해 직접 논문을 검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Fig.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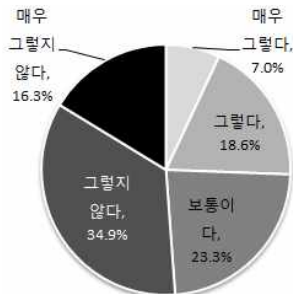


Fig. 2.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search the clinical research paper.

(1) 임상연구 논문을 검색하지 않는 이유

임상연구 논문의 검색에 대해 ‘그렇지 않다’ 또는 ‘매우 그렇지 않다’의 부정적 답변을 선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복수응답 허용) 평균 1.4개의 답변이 선택되었으며 그 이유로는 ‘검색 방법에 대한 무지’가 33.3%(11회)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논문을 검색할) 시간적 여유 부재’가

24.2%(8회), ‘논문 결과에 대한 불신’이 15.2%(5회), ‘언어적 문제’가 12.1%(4회) 로 확인되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특정 질환에 대한 관심 부족’, ‘미처 (논문을 읽어보는 것을) 생각해보지 못해서’ 등이 있었다(Fig.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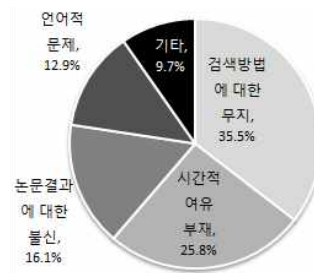


Fig. 3. The reason why negative respondents do not search the clinical research paper.

4) 임상연구 치료기술 진료 반영도

임상연구에 사용된 치료기술을 실제 임상 진료에 반영하는 지의 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가 39.5%(17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보통이다’가 27.9%(12명), ‘그렇다’가 25.6%(11명), ‘매우 그렇다’가 4.7%(2명), ‘매우 그렇지 않다’가 2.3%(1명) 순으로 나타나 30.3%가 임상연구에 사용된 치료기술을 진료에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 하였다(Fig.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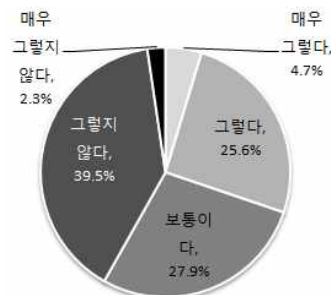


Fig. 4.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use the result of the clinical research paper.

(1) 임상연구 치료기술을 실제 임상에 반영하기 힘든 이유

임상연구 치료기술을 실제 임상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복수 응답 허용) 평균 1.1개의 답변이 선택되었으며 그 이유로는 76.2% (16명)가 ‘변증이 반영되지 않아서’라고 응답 하였다. 9.5%(2명)는 ‘선혈의 한의학적인 이유가 기재돼있지 않아서’를 꼽았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의학적 성과를 논한 경우를 보지 못해서’ 등이 있었다. ‘논문에 침 치료 수기법이 기록돼있지 않거나 기록돼있더라도 만족스럽지 않아서’와 ‘치료 빈도 또는 치료기간이 만족스럽지 않아서’는 한 건도 선택되지 않아 임상연구와 실제 진료간의 괴리가 있음을 나타내었다(Fig. 5).



Fig. 5. The reason why negative respondents thought the result of the clinical research is hard to use in practical treatment.

5) 향후 한의학 연구에서 가장 필요한 연구

임상 한의사의 입장에서 본 향후 한의학 연구에서 가장 필요한 연구에 대한 설문 결과복수 응답 허용) 평균 1.8개의 답변이 선택되었으며 ‘치험례 등의 증례연구’가 41.0%(32명), ‘무작위 배정 임상연구’가 29.5%(23명)로 임상연구가 비교적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에 비해 ‘원전 및 문헌연구’와 ‘기초 실험 연구’는 각각 9.0%(7명)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턱 장애와 전립선 질환의 증례연구’ 등 관심 있는 질환을 기술한 응답

과, ‘약재의 표준화’, ‘임상진료지침 마련(표준)’ 등 표준화 연구에 대한 응답, ‘한의학에 합당한 연구 방법 개발’, ‘모든 자료를 공유하고 임상에 맞춘 변증치료 연구’ 등 연구방법론적인 측면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Fig.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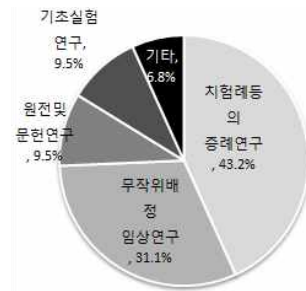


Fig. 6. The most essential area of research for the Korean medicine.

2. 2차 설문조사

2차 설문조사는 “한의원단위 증례연구 활성화를 위한 임상증례연구 워크샵” 실시 약 한 달 후, 참가자 50명에게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었으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무 응답자에게 평균 2회의 전화 연락을 통해 응답을 독려했다. 총 응답자는 29명으로 회수율은 58%이었다.

1) 임상연구에 대한 관심도의 변화

워크샵 이후에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되는 임상연구 논문에 대한 관심 정도가 증가하였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 ‘그렇다’가 51.7%(15명)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가 31.0%(9명), ‘매우 그렇다’가 10.3%(3명), ‘그렇지 않다’가 6.9%(2명)로 조사되었다. ‘매우 그렇지 않다’는 한명도 응답하지 않았다(Fig.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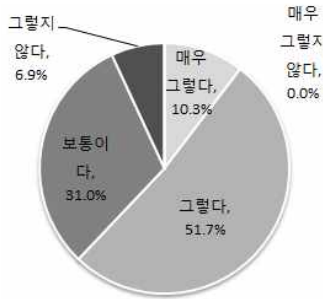


Fig. 7. The change of interest about the clinical research.

2) 임상연구 논문 검색 경향의 변화

임상연구 논문을 직접 검색해보는 경향의 증가에 대한 설문 결과 '보통이다'가 51.7%(15명)로 가장 많았고, '그렇다'가 24.1%(7명), '그렇지 않다가 20.7% (6명), '매우 그렇지 않다가 3.4%(1명)로 조사되었다.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나오지 않았다(Fig.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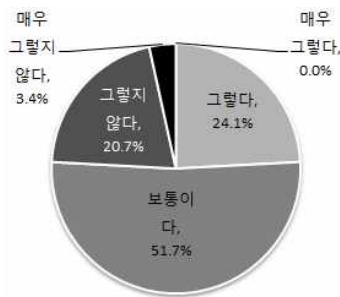


Fig. 8. The change of trend in the searching the clinical research paper.

3) 임상연구 치료기술 진료 반영의 변화

워크샵 이후 임상연구에 사용된 치료기술의 실제 임상 진료 반영이 증가하였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 '보통이다'가 44.8%(13명)로 가장 많았고,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가 각각 24.1%(7명)의 응답이 나왔다. '매우 그렇지 않다가 6.9%(2명) 있었고,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Fig.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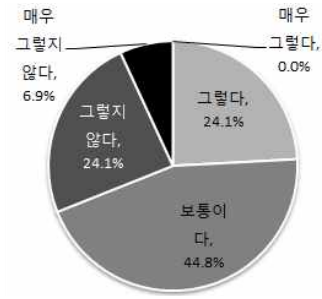


Fig. 10. The change of percentage who use the result of the clinical research paper after the workshop.

4) 정보 출처가 의학적 결정에 미치는 영향

정보의 출처에 따른 임상 한의사의 의학적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응답을 '영향력이 매우 큰 것'(10점), '약간 영향력이 있는 것'(5점), '영향력이 없는 것'(0점)에 따라 가중치를 주어 분석한 결과 '자신의 진료경험'(15.6%)과 '교수 및 스승'(14.9%), 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교과서, 의학 및 한의학서적'(12.4%), '동료와의 대화'(10.5%), '원전'(9.3%)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외 연구논문'이 의학적 결정에 영향력을 높게 미친다는 응답 또한 총 23.5%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다 (Fig. 10, Tabl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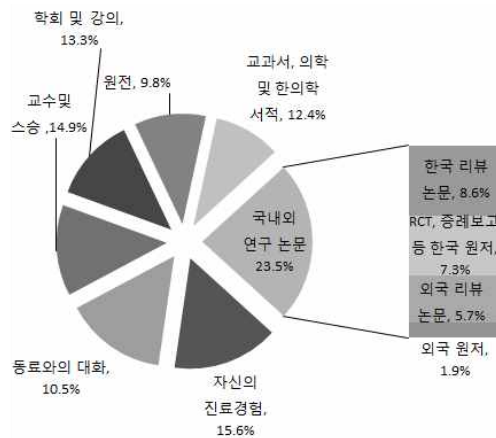


Fig. 10. The influence ratio of authority for the decision of clinical treatment.

5) EBM 문헌의 효과적인 보급 방법

임상연구 결과 등의 EBM 관련 문헌의 보급 방법에 대해 임상가가 생각하는 중요성을 평가한 결과를 ‘가장 중요’(10점), ‘약간중요’(5점), ‘별로 중요하지 않음’(0)점으로 가중치 비교한 결과에서는 ‘워크샵 및 교육’(19.0%), ‘읽기 쉽게 가공된 논문’(18.7%),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이해’(18.3%), ‘Email등 뉴스레터’, ‘소책자, 리플렛 등의 정리물’(15.1%), ‘한의신문 등 신문기사’(13.9%)등으로 고른 선호도를 보였으나 상위 3개 항목인 ‘워크샵 및 교육’,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이해’, ‘읽기 쉽게 가공된 논문’과 하위 3개 항목 ‘소책자, 리플렛 등의 정리물’, ‘Email등 뉴스레터’, ‘한의신문 등 신문 기사’를 비교하여 볼 때 접근성이 용이하지만 내용이 비교적 간결한 있는 요약물 보다 접근성은 낮으나 직접 참여하여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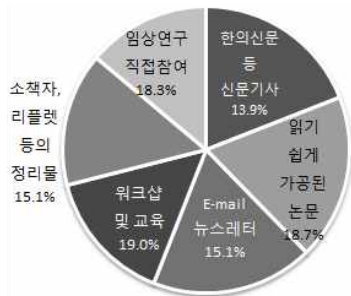


Fig. 11. The effective EBM popularization program for clinician.

6) EBM에 대한 태도

(1) 한의학계의 EBM 흐름에 대한 환영도

최근 한의학계의 EBM으로의 흐름에 대한 본인과 주변의 태도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는 90(중위수) 정도의 환영도를 나타낸다고 응답하였으며(Fig. 12A) 주변의 태도는 65(중위수) 정도의 환영도를 나타낸다고 응답 하여 약간 낮다고 응답하였다(Fig. 12B).

(2) 근거 중심의학을 기초로 한 임상진료의 유용성

EBM에 기초한 임상진료의 유용성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는 “EBM에 기초하여 한의학 임상 진료를 하는 것은 환자 치료·관리를 향상시킨다.”는 의견에 80(중위수)정도 동의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Fig. 12C), “EBM의 방법론은 한의학 진료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역시 80(중위수)정도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Fig. 12D). 또한 “EBM의 방법론을 도입한 진료는 한방 진료에 있어서는 제한된 가치를 지닌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80(중위수)정도 동의한다고 하여 대체로 EBM을 임상진료에 적용하는 것이 진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3) 현재 임상진료에서의 근거기반 치료의 비율

현재 실시하는 진료 중 EBM에 기반을 둔 행위의 비율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70(중위수) 정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Fig. 12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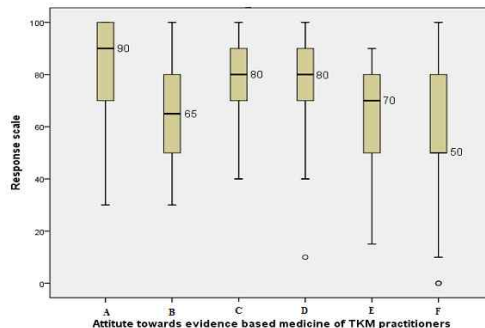


Fig. 12. Attitude towards EBM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practitioners.

A: Attitude towards current promotion of evidence based medicine. B: perceived attitude of colleagues towards evidence based medicine(100=extremely welcoming, 0=extremely unwelcoming). C: practicing evidence based medicine improved patient care and management. D: perceived usefulness of evidence based medicine in daily management of patients. E: estimated percentage of respondent’s clinical practice that is evidence based. F: Evidenced based practice has only limited value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field(100=strongly agree, 0=strongly disagree).

IV. 고 찰

서양의학에서 EBM이 의사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이유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부는 근거 있는 치료기술에만 급여를 지불함으로써 보건의료비용을 낮출 수 있다. 둘째, 연구근거에 따라 의료소송에 대한 법률적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셋째, 의학 정보에 밝은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¹⁵⁾. 이러한 흐름은 한의학 분야도 예외가 아니며 이로 인해 한의 치료의 근거수준 향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한의학분야에서 근거를 구축하기 위한 임상시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진되고 있으며 임상연구도 질적, 양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⁷⁾.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의 보급을 위한 교육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EBM에 대한 한의계 도입에 있어 실제 임상 한의사들에 대한 인식도나 태도에 대한 조사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EBM의 침범인 임상 한의사의 인식과 태도를 침구 임상연구 결과를 발표한 워크샵에 참가한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워크샵 프로그램은 근거중심의학 및 임상연구에 대한 개론과, 안구건조증 및 안면홍조증 임상연구의 진행 및 결과, 한의원에서 임상연구 활용법 및 증례보고 방법, 증례보고에 빈용되는 통계 분석법 등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프로그램 책자와 함께 임상연구에 이용된 경혈과 취혈법을 요약한 리플렛이 함께 제공되었다.

워크샵 참여자의 연령대는 주로 20-30대의 임상경력 10년 미만의 한의사들이 60% 가량의 비율로 젊은 한의사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40대 또한 30.2%를 차지하였으나 50대의 참가자는 7.0%로 매우 낮았다. 이는 설문이 이뤄진 워크샵에 대한 관심 연령층이 청장년층에 해당하였기 때문으로, 본 연구 설문 결과의 해석 또한 이러한 맥락 하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1차 설문조사 결과 '임상연구에 대한 관심도'에 약 70%의 응답자가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 임상논문을 검색한다고 대답한 비율은 25.6%로 절반 이하에 해당하였으며 그중 2명만이 일반 의이었으며 8명은 전문의 및 현 수련의라고 대답하여 전문의와 수련의의 비중이 80%에 해당하였다. 또한 논문을 검색해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검색방법에 대한 무지'(35.5%)가 가장 많아 향후 전문의 수련과정 외에 학부에서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은 물론 임상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이 꾸준히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상연구에서 사용된 치료기술을 실제 임상에 적용하는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30.3%가 '적용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그렇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변증이 반영되지 않아서'(76.2%)와 '선혈의 한의학적인 이유가 기재돼있지 않아서'를 꼽아 현재 임상연구 결과들이 한의학적 특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진료에 적용이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는 최근의 침구 임상연구가 변증치료를 반영하는 추세¹⁶⁾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임상에게 충분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향후 한의학 연구에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치험 레 등의 증례연구'가 41.0%(32명), '무작위 배정 임상연구'가 29.5%(23명)로 나타났으며 전문의 과정 여부에 따른 선호도는 나타나지 않았다.

1개월 후 실시된 2차 설문에서 워크샵 종료 후 임상연구 논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51.7%에 해당하였으며 논문 검색 경향의 변화 역시 24.1%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임상연구에 사용된 치료기술의 실제 진료 반영에 대해서도 역시 24.1%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정보 출처가 의학적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설문에서도 23.5%가 국내외 연구논문이 높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EBM문헌의 효과적 보급방법에서는 '워크샵 및 교육',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이해', '읽기 쉽게 가공된 논문'처럼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보급방법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여

EBM의 적용에 대한 요구가 풍부함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EBM에 입각한 진료가 환자의 치료 및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설문에서 80%가 '동의한다'고 응답한 결과와도 일치된다. 그러나 '한의학계의 EBM 흐름에 대한 환영도' 설문에서 응답자들이 '본인의 환영도가 90(중위수)'이라고 응답한데 비해 '주변의 환영도를 65(중위수)'라고 응답 한 것과 '응답자들의 근거기반 치료의 비율'이 평균 70%로 사전 설문에서 30.3%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을 볼 때 상기 결과는 2차 설문에서 응답한 응답자들의 관심도와 워크샵을 통한 보급의 효과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한의원단위 증례연구 활성화를 위한 임상증례연구 워크샵'에 참가한 한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로서, 이러한 워크샵에 참가하는 행위 자체가 임상연구 또는 EBM 전반에 대한 관심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체 한의사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이 아닌 한계가 있다. 또한 워크샵의 특성과 설문의 목적이 침구 임상연구 및 그 적용에 국한되어 있어 한약 치료등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임상연구, EBM의 방법론 등에 대한 한의사들의 관심과 태도 및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전체 한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표본추출을 통해 임상 한의사들의 EBM에 대한 인식도와 활용도 및 요구사항을 조사하는 후속연구 수행 및 이에 기반 한 EBM 보급 수단을 개발하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V. 결 론

한의학의 근거중심의학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침구 임상연구 워크샵에 참가한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응답자의 70%가 최신 임상연구 동향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EBM에 기반 한 진료가 도움이 된다.'는 의견 또한 평균 80%이었으나 '직접 논문을 검색한다.'는 응답은 26%에 불과하였으며 그 이유로 검색방법에 대한 무지가 33.3%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여 한방 의료의 EBM 확대를 위해 임상의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2. 응답자의 30.3%가 '임상연구에서 사용된 치료기술을 진료에 반영한다.'고 하였으며 실제 임상에 반영하기 힘든 이유로 76.2%가 '변증이 반영되지 않아서'라고 응답하여 임상진료와 연구 간의 괴리가 EBM의 적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 향후 한의학 연구에 가장 필요한 부분에서는 '치험례 등의 증례연구'가 41.0%, '무작위 배정 임상연구'가 29.5%로 나타났으며 기초실험 및 원전에 대한 필요성은 각각 9.5%로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 워크샵 실시 후의 임상연구 논문에 대한 관심은 51.7%에서 증가하였다고 하였으며 논문검색의 경향 역시 24.1%정도 증가하였다고 응답 하여 충분한 교육을 통해 한의 임상진료에 있어 EBM의 보급이 증가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6. EBM 문헌의 보급방법에 대한 중요도에 대한 설문 결과 '워크샵 및 교육',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이해', '읽기 쉽게 가공된 논문'이 '소책자, 리플렛 등의 정리물', 'E-mail등 뉴스레터', '한 의신문 등 신문기사'에 비해 효과적이라고 응답 하여 보다 깊이 있는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조사 결과 임상 한의사의 EBM에 대한 인식 및 교육 수요가 높음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교육의 효과 역시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를 반영한 한의사 보수교육의 확대 및 학부 교육과정 등의 개선이 필요 할 것

로 사료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침구경락 표준 치료기술 개발(K10010) 과제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참고문헌

1. 김수영. 근거중심의학에 대한 이해. 2006 Young Urologist Winter Forum 발표자료. 2006. 서울.
2. Barghouti F, Halaseh L, Said T, Mousa AH, Dabdoub A. Evidence-based medicine among Jordanian family physicians: awareness, attitude, and knowledge. *Can Fam Physician*. 2009 ; 55(7) : e6-13.
3. Hadley J, Kulier R, Zamora J, Coppus SF, Weinbrenner S, Meyerrose B et al. Effectiveness of an e-learning course in evidence-based medicine for foundation (internship) training. *J R Soc Med*. 2010 ; 103(7) : 288-94.
4. Miller A, Archer J. Impact of workplace based assessment on doctors' education and performance: a systematic review. *BMJ*. 2010 ; 341 ; c5064.
5. 안덕선. 우리나라에서 근거중심의료의 활성화를 위한 의학정보와 지침개발. 서울 : 보건복지부. 2002 : 6-9.
6. 김건상. 임상진료지침 보급 및 정보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 대한의학회·보건복지부. 2009 : 38-44.
7. 박지은, 오달석, 신선화, 최준용, 구창모, 김에란 등. 침구 임상연구 논문동향 분석.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07 ; 13(2) : 101-12.
8. 이로민, 남상수, 이상훈, 김용석. 침 관련 근거중심의학의 연구 동향. 2009 ; 26(2) : 147-58.
9. Hugh M, Altman DG, Hammerschlag R, Hammerschlag R, Li YP, Wu TX, et al. STRICTA Revision Group. Revised Standards for Reporting Interventions in Clinical Trials of Acupuncture (STRICTA): Extending the CONSORT Statement. *J Evid Based Med*. 2010 ; 3(3) : 140-55.
10. 신선화, 오달석, 김보영, 최선미. 한의약 임상시험 전문 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07 ; 13(2) : 127-33.
11. 전주현. 안구 건조증 환자에 대한 침 치료 임상시험 연구.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집. 2009 ; 1-41.
12. Kim KH, Kang KW, Kim DI, Kim HJ, Yoon HM, Lee JM, et al. Effects of acupuncture on hot flashes in perimenopausal and postmenopausal women - a multicenter randomized clinical trial. *Menopause*. 2010 ; 17(2) : 269-80.
13. Hayward RS, Guyatt GH, Moore KA, McKibbin KA, Carter AO. Canadian physicians' attitudes about and preferences regarding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CMAJ*. 1997 ; 156(12) : 1715-23.
14. McColl A, Smith H, White P, Field J. General practitioner's perceptions of the route to evidence based medicine: a questionnaire survey. *BMJ*. 1998 ; 316(7128) : 361-5.
15. Greenhalgh T, Donald A. 근거중심의학 워크북. 서울 : 아카데미아. 2007 : 56-60.
16. Macklin EA, Wayne PM, Kalish LA, Valaskatgis P, Thompson J, Pian-Smith MC, et al. Stop Hypertension with the Acupuncture Research Program (SHARP): results of a randomized, controlled clinical trial. *Hypertension*. 2006 ; 48(5) : 838-45.

【별 첨】

설 문 지

1. 1차 설문조사 (“한의원단위 증례연구 활성화를 위한 임상증례연구 워크숍” 직후 실시)

1. 귀하의 임상 경력은 몇 년이십니까?
()년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남 ②여

3.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4.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학사 ② 석사 재학 ③석사(수료 포함) ④박사 재학 ⑤박사(수료 포함)

5. 귀하의 병원 수련 여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하지 않음 ② 일반수련의 재직 ③ 일반수련의 수료
④ 전문수련의 재직 ⑤ 전문의 취득(수료 포함)

6. 전문수련이나 전문의인 경우, 전공분야는 무엇입니까?
()

7. 학력이 석사 재학 이상인 경우, 전공분야는 무엇입니까?
()

8. 평소 국내외 저널에 발표되는 임상연구에 대해 관심이 있으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9. 평소 국내외 저널에 발표되는 임상연구 논문을 직접 찾아보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9-1. 위의 질문에 부정적 답변(④ 또는 ⑤)을 선택하신 경우,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논문의 전문을 읽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플라시보 대조군 무작위 임상연구가 침의 효과를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 논문 검색 방법을 잘 몰라서
- 언어적 문제 때문에
- 기타 ()

10. 평소 임상연구 논문에 나오는 치료기술을 임상 현장에 반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10-1. 위의 질문에 부정적 답변(④ 또는 ⑤)을 선택하신 경우,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논문의 침 치료 경혈 선택이 불만족스러워서
- 침 치료에 환자 개개인에 맞춘 변증이 반영되지 않아서
- 논문의 침 치료 수기법이 불만족스러워서
- 논문의 유침 시간, 치료 일정 등이 불만족스러워서
- 경혈 선택의 한의학적인 이유가 기재되어있지 않아서
- 기타 ()

11. 앞으로 한의학 연구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원전 및 문헌 연구
- 세포, 동물 실험 등 기초실험 연구
- 질적으로 기술된 치험례 등 증례연구
- 무작위배정연구 등 임상연구
- 기타 ()

2. 2차 설문조사 (“한의원단위 증례연구 활성화를 위한 임상증례연구 워크숍” 1달 후 실시)

1. 워크숍 이후 국내외 저널에 발표되는 임상연구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였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2. 워크숍 이후 국내외 저널에 발표되는 임상연구 논문을 직접 찾아보는 경우가 증가하였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3. 워크숍 이후 임상연구 논문에 나오는 치료기술을 임상 현장에 반영하는 경우가 증가하였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4. 아래의 정보의 출처 중에서 귀하께서 의학적 결정을 내리실 때 참고하는 각각의 정보의 출처 별 영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보의 출처	영향력 없음	약간의 영향력 있음	매우 큰 영향력 있음
① 자신의 진료경험을 통해 얻은 정보			
② 동료와의 대화에서 얻은 정보			
③ 교수, 스승으로부터 얻은 정보			
④ 학회 또는강의로부터 얻은 정보			
⑤ 원전으로부터 얻은 정보			
⑥ 교과서, 의학 및 한의학 서적으로부터 얻은 정보			
⑦ 한국 리뷰 논문으로부터 얻은 정보			
⑧ 무작위배정임상시험, 증례보고 등 한국 원저로부터 얻은 정보			
⑨ 외국 리뷰 논문으로부터 얻은 정보			
⑩ 무작위배정임상시험, 증례보고 등 외국 원저로부터 얻은 정보			

5. 아래의 임상연구 결과 보급 방법 중, 임상 한의사로서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각각의 보급 방법의 중요도는 어떻게 됩니까?

요소	별로 중요하지 않음	약간 중요	가장 중요
① 한의신문 등의 기사를 통한 보급			
② 읽기 쉬운 형태로 가공된 논문 자료			
③ E-mail 뉴스레터			
④ 임상연구 결과에 대한 워크샵 및 교육을 통한 보급			
⑤ 간략하게 정리된 소책자, 리플렛 등의 정리물 배부			
⑥ 임상 한의사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증례 혹은 임상연구			

6. 다음 6개의 질문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점수로 매겨주세요.

- ① 현재 한의학계의 근거중심의학 흐름에 대한 귀하의 환영도는 점수로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100 = 매우 환영, 0 = 매우 환영하지 않음)
- ② 현재 한의학계 근거중심의학 흐름에 대한 동료들의 환영도를 점수로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100 = 매우 환영, 0 = 매우 환영하지 않음)
- ③ “근거중심의학에 기초하여 한의학 임상 진료를 하는 것은 환자 치료·관리를 향상시킨다”는 의견에 몇 점 정도 동의하십니까?
(100 = 매우 동의, 0 = 매우 동의하지 않음)
- ④ “근거중심의학의 방법론은 한의학 진료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몇 점 정도 동의하십니까?
(100 = 매우 동의, 0 = 매우 동의하지 않음)
- ⑤ 현재 실시하는 진료 중 근거중심의학에 기반을 둔 행위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100 = 100% 근거중심의학에 기반, 0 = 0% 근거중심의학에 기반)
- ⑥ “근거중심의학의 방법론을 도입한 진료는 한방 진료에 있어서는 제한된 가치를 지닌다”는 의견에 몇 점 정도 동의하십니까?
(100 = 매우 동의, 0 = 매우 동의하지 않음)